

2022

평화로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협력

문화예술
교육
협력
공간
함께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X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2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합

4

동네에서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할까?

8

- 성북문화예술교육 허브 만나기

우리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4

- <예술로키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가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28

-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동료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46

- 성북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모임 <차곡차곡>

문화예술교육으로 동네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까?

54

- 생활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강사 네트워크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서로가 연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68

- 송곡중학교 특수학급 연계 활동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일, 문화예술교육 허브 하기

84

문화예술교육 거점

성북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스스로 필요한 욕구를 발견하며 함께 계획을 설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적, 장르적 예술교육에 제한되지 않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자신과 일상의 성찰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성북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이슈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공론장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의 문화예술교육LAB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성북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성북문화재단, 공간민들레,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이 먼저 손을 들었고, 공유성북원탁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거버넌스와 민관 협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성북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 플랫폼이자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생태계를 위해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형 공유 플랫폼으로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라는 이름하에 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함께 일하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주요 활동

- **지역 현황 진단 및 연구** 2020~2021

- **지역 문화예술교육 답론 형성** 2020~2022

- 라운드테이블(5회), 참여워크숍(2회), 콜로키움(11회), 포럼(3회)

- **시범사업 및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그리기** 2020~2022

- 마을 예술로 돌봄학교(4회)
- 우리동네 키움센터 연계 <예술로 키움>(4개소, 32회)

- **문화예술교육 LAB** 2021~2022

- 정보공유랩: 소식지 발행 <ㅎㅎ레터>
- 지역연계랩: 축제 연계 자원맵핑 전시, 주민센터 연계 생활기반 강사 네트워크 모임 운영
- 역량강화랩: 아카데미랩,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모임 <차곡차곡> 운영
- 공론장랩: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 살아가기

- **지역 협의체 운영** 2020~2022

- 거점 운영단(월1회) 및 협의체 운영



함성문화예술마을

2021년 4월,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북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경계를 넘나들고 협력하는 문화 예술교육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자 일상의 공간인 기초 단위(생활권)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롭게 할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서로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생각과 마음을 진심을 다해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돌봄과 문화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더욱 알게 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모여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은 청년예술가들이 지역 문화예술 교육실천가로 성장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동네에서 서로 기대고 비빌 언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함’은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와 돌봄, 다양한 시민들과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이 협력하고 관계맺으며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간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2021~2022년 2년간 총16명의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이 함께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실험공간 ‘함’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새로운 시도와 지역 연대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2년간 함께한 길음동의 ‘함’ 공간은 문을 닫지만 성북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진 만남과 활동들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공작소

무엇이든 '하다'를 명사형으로 만들어본 이를 '함'
하얀 박스처럼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는 '함'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실험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곳,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 운영 기간 2021.03~2022.12
- 주소 서울 성북구 삼양로 15-2, 2층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합 주요 활동

- **문화예술교육 실험공간 조성 및 운영**
- **청년예술가 대상 문화예술실천가 모집 및 선발**
 - 총 16명(2021년 8명, 2022년 8명)
-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총 113회(2021년 46회, 2022년 67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 총 85개(2021년 40개, 2022년 52개) 프로그램
 - 총211회(2021년 104회, 2022년 107회) 운영
 - 총11,632명(2021년 1,027명, 2022년 10,605명) 참여
 - 학교, 도서관, 아동센터, 복지관, 단체, 지역상점 등 문화예술교육 지역 연계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총 60개 단체 및 기관 협업(2021년 28곳, 2022년 32곳)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합 주요 활동 2022

• 돌봄, 복지 등 주요 지역 연계 활동

- <종암인디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 활동가, 문화예술교육가와 문화예술교육 공동기획 및 운영, 결과전시로 지역공유
2022.09~11 <우리동네 포토에세이북> <다시활짝우리동네展>

- 작은도서관, 도서관, 미술관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지역기관, 활동가, 문화예술교육가와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공동기획, 운영
2022.05 <방's 상담소 어린이해결사> 길음동편, 도서관편, 미술관편
2022.10 <신나게 신나게> 꿈틀도서관
2022.10 <동글동글 나라, 동그리 해결사> 성북정보도서관

- <송곡중학교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가와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공동기획 및 운영
2022.09~11 <우리동네 탐험대>, <업사이클링 즉흥연주>
2022.12 중3 전체학급 전환기 문화예술 교육 <우리가 피워낸 시간>

- <성북동 주민센터>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주민센터 연계 장애·비장애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2022.12 <동글동글 나라, 동그리 해결사>

- <나무와열매> 연계 통합돌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장애 비장애 통합 돌봄시설 <나무와열매> 연계 문화예술교육 기획 운영
2022.10~11 <스스로 한 걸음>, 지역탐방 및 자립생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특수교육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운영

: 2022.10~12 초,중학교 특수교사, 문화예술교육가, 단체, 기관과 장애 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 관련 콜로키움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운영(월 1회)

• 지역 축제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동

2022.05.05~28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나는__어린이 '그냥 놀고 싶어'>

2022.07.24 월곡꿈그림도서관 청소년 축제

2022.09.17 성북 청년 주간 행사 <성북청년모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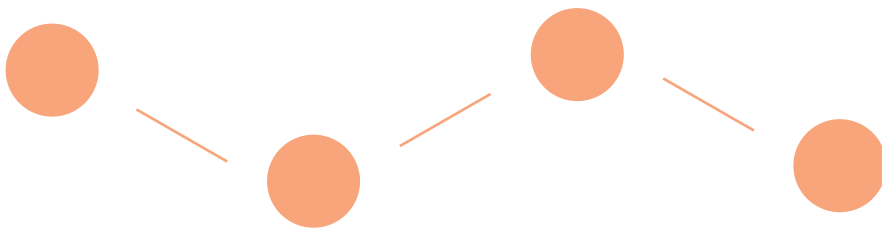
2022.10.15~16 두근두근 별길마켓

2022.10.22~31 성북진경 오픈스페이스 페스타

Q1.

동네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할까?

성북문화예술교육 허브 만나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성북 문화예술교육 기초 거점’에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허브를 선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45명의 동네 친구들이 기꺼이 그 시작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을) 하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서로를 소개하며 앞으로 허브가 그려낼 장면들을 상상해보았습니다.

-
- **내용**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선언 콜로키움
 -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동네 사람들 45인
 - **일시** 2022.6.15(수)
 - **장소** 무중력지대 성북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시작합-! 45명의 동네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우리 동네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지역 자원의 연결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공감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북문화재단, 공간민들레, 마을온예술이 2020년 아토피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디딤돌 삼아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과 ‘문화예술교육’ 두 키워드를 가지고 청소년, 청년, 교사, 활동가, 지역 기관 등 다양한 자리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북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교차되는 대화들 속에서 발견하고 좁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층층이 쌓아간 대화들을 단단한 지반 삼아 허브의 첫걸음을 떼보려 합니다. 성북 곳곳의 자원을 서로 연결해 주며 문화예술교육 자리를 만들어내고, 성북에 꼭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발견해 판을 벌이는 허브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15일,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만나기> 행사로 그동안 만나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허브를 선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41명의 동네 친구들이 기꺼이 그 시작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을) ___하고 싶다’는 문장을 완성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허브가 그려낼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반짝이는 대화들을 소개합니다.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 ”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랑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시인이셨던 거예요. 한밤중에 문자가 와서 보면 산책하다가 생각났다고 시를 보내주셨어요. 이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기량 교육으로 이해했는데, 이 어르신을 보면서 본인이 행복해하는 것을 동네 친구들이랑 나누는 일이 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싶었어요.

- 최부(정릉도서관 사서)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유년 시절을 어른들에게는 건강한 회복을 주고 싶다. ”

제 딸들이 성북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궁극적으로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른인 나는 과연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교육을 공부하며 나를 되돌아보면서도 이웃들과 함께 회복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나와 내 아이들, 동네 이웃들을 되돌아보며 그 존재들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인 것 같아요.

- 이성현(생활문화 활동가)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결되고 싶다. ”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살아서 도시는 차갑고 이웃이 없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와보니가 ‘서울이 맞나?’ 싶어요. 서울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제가 그동안 원했던 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고,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 이하은(청소년)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

요즘 문화예술 분야에서 코칭을 받고 있는데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제 자아의 99%가 공적 존재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삶의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중장년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재건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역할이 아닌 자기 존재로 지역에서 살 수 있다면 성북은 동네 친구로 이루어진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 민지선(전 구청 공무원)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을 싶다 ”

친구를 만들고

- 콜라 -

널리 널리 알리고

- 동자 -

허물고

- 오몽 -

재미나게 살고

- 푸 -

소통하고

- 김이진 -

좋은 어른이 되고

- 항상 -

삶을 돌보고

- 보리 -

에너지를 얻고

- 맥심 -

시간을 잡고

- 찐 -

성장하고

- 유라 -

새로운 시각을 갖고

- 원박지 -

치유받고

- 손민경 -

전환마을을 만들고

- 윤정 -

뛰어가고

- 김가희 -

네트워킹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하고

- 준 -

사회적 함의를 얻고

- 토스 -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소통하고 싶다.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참가자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활동하며 만난 분들이 다 성북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활동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성북이 계속 궁금했어요. 오늘 와보니 이곳에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뒤에 있는 고립된 청년들, 청소년들이 떠올랐어요. 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 체험이 더 필요해요.

- 모카(청년)

“ 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평화공동체를 누리고 싶다. ”

아이 둘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갑자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돌아가자 했더니 둘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라고 했어요. 폭우 속에서 축구공 하나로 뛰어놀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한 아이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서 또 누군가 같이 걸어 나오는 모습. 허브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자전거 바퀴 사이에 모여 있는 중심축’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촘촘한 삶이 되어서 설령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붙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케이(성북문화재단)

두 시간 삼십 분 동안 진행된 대화 곳곳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곳도 가능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야기가 결의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되어, 느슨하면서도 촘촘히 보이지 않는 연결을 확장해나가는 모습어요.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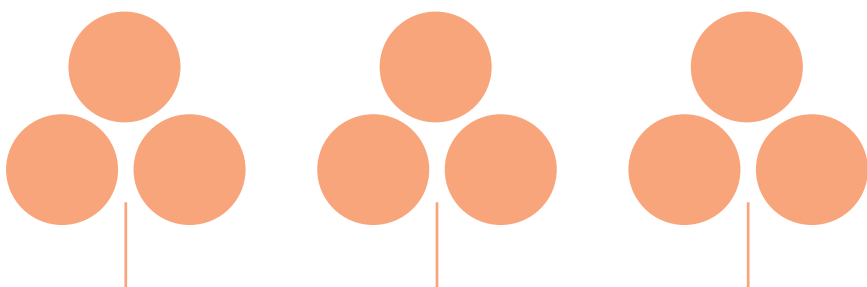
우리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술로키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구조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허브와 성북구청, 지역 활동가가 초기 사업 기획을 하였으며, 이후 우리동네키움센터 1·5·6·10호점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플레이그룹 잼잼,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이 합류하여 기획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각 센터의 욕구와 물리적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센터별 총 8회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내용** 우리동네키움센터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대상** 우리동네키움센터 1·5·6·10호점 어린이

• **기간** 2022.02~12

02~07 | 사업 설계 및 기획단 구성, 과제 도출

07~08 | 센터별 프로그램 기획 및 멘토링 진행

09~11 | 프로그램 진행 및 주체별 FGI 실시

12 | 결과공유포럼

성북 키움센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구조 만들기

문화예술교육은 돌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공센터는 넘쳐나고 있어요. 거점은 돌봄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완결된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2020년, 라운드테이블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허둥대던 때, 가장 먼저 공백이 드러난 영역은 ‘돌봄’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 곳곳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성북에도 10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구청은 키움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차였고, 허브는 그것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2022년, <예술로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연구할 이들을 찾습니다



- 10개 센터에 골고루 예산 포개는 방식 지양하기
- 지역 자원 연결하여 실행하기
- ‘왜 하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질문하기

그동안 허브에 축적된 이야기를 나침반 삼아 <예술로키움> 사업을 설계해나갔습니다. 올해는 성북의 키움센터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구조를 연구하는 한 해를 보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기획단’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을 키움센터에 가장 먼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1, 5, 6, 10호점이 손을 들었고, 4개 센터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등하원이 불규칙한 키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정해진 루틴으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굳어있는 몸을 회복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교육 활동의 의미가 부모에게도 꼭 가닿았으면 해요.”

센터의 이야기에서 기획단의 과제가 네 가지로 추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몸놀이가 가능하면서도 각 센터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주할 수 있는, 유연한 기획력을 갖춘 문화예술교육가를 찾아나섰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그려나갈 당신이 필요해요’라는 제안에 플레이그룹 잼잼과 마을온예술이 고개를 끄덕였고, 총 8명의 문화예술교육가가 모였습니다.

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하기

키움센터는 단독주택형, 아파트형, 다세대빌라 등 저마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의 형태에 따라 상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달라지기에 문화예술교육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환경을 파악하고, 지금 센터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큰 방향은 기획단이 함께 설정한 네 가지 과제로 하되,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 센터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일을 벌이는 단위가 ‘기초’이기에 센터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이들은 어떤 성향인지, 동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레 마련되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각 센터에서 8회차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A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혼나는 일이 잦다. A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예술로키움에 참여하는 A의 모습은 ‘발표왕’이었다. 센터 선생님들도 ‘A가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무엇이 좋아졌다는 거지? A는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인 프로그램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지켜본 문화예술교육의 힘은 ‘회복’이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순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체득해야 할 것들 모두를 가르칠 순 없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스스로 알아가고 느끼고 몸으로 익힐 만한 틈새가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소화하기란 불가능이다. 문화예술은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손민경(1호점 센터장), 토론문 발췌

“모두가 진심이었어요”

2022년 12월 8일, 예술로키움 결과공유회에는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포함한 총 12개 센터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예술로키움이 구현하고자 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손을 잡아보자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 첫 시작의 진심은 서울에 이 많은 키움센터가 있는데 숫자만의 설치가 아니라 성북구가 뭐 다르게 할 수 있는게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문화잖아. 구청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셔서 문화재단과 만났어요. ”

- 탁선형(구청 담당자)

“ 허브와의 첫 만남에서 ‘우리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때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

- 유은지(문화예술교육가)

“ 이 프로젝트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강사를 초빙하는 식이었다면 아이들, 센터교사의 변화까지는 불러오진 못했을 거예요. ”

- 이은영(10호점 센터장)

결과공유회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라는 말을 불러낸 장면은 서로 달랐을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고민한 마음만큼은 모든 장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술로키움에서 연구한 내용을 매뉴얼로 구조화하여 더 많은 센터의 아이들을 만나고, 예술로키움의 논의 구조를 지역의 다른 기관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진심인 이들을 어떻게 찾아낼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진심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즐겁고 커다란 숙제가 남았습니다.

by 너들(김도영)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은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이라는 표현은 19세기 미국 가곡의 제목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 번안되어 불리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라는 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진 얼굴로 쉴 수 있는 공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로키움>은 2022년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구청, 재단, 키움센터, 문화예술교육가가 우리 동네키움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그 일환으로 진행한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10호점의 ‘놀이탐험대’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보호자의 퇴근을 기다리며 키움센터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센터가 조금 더 편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대형 택배상자를 재활용해 어린이들이 나만의 작은 집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한 '놀이탐험대'. 그 속에서 어린이들은 직접 가위와 테이프를 들고 상자를 자르고, 문을 달고, 초인종과 우체통을 그려 집을 완성했다. 집이 완성된 뒤에는 서로의 집에 초대장을 보내고 우체통에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벗고 자신이 만든 집으로 달려갈 정도로 '상자 집'의 인기가 뜨거웠다고 한다.

함박눈이 쏟아진 겨울날 저녁,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10호점의 문을 두드렸다.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와 달리 키움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스한 노란 빛이 가득했다. 낯선 손님을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에게 '놀이탐험대'에서 만든 집이 멋지다고 성북구 곳곳에 소문이 자자해서 오늘 취재를 하러 왔다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준 한수민, 동유리, 박은진 어린이의 '집'에 방문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상자 집은 나만의 쉬는 공간이에요"

수세미네 '숨는 집'을 소개합니다

집이 너무 멋지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해줄 수 있어요?

수민 이거는 상자로 만들었어요. 테이프도 활용하고 신문지도 붙였어요. 지붕에 이렇게 끈을 달아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 열기 좋게 만든 거
군요. 문에 적힌 건 뭐가요?

수민 이거는 초인종이에요. 그리고 연필로 구멍을 뚫어서 안에서 여기 구멍에 눈을 대면 밖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구멍 뚫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하니까 됐어요. 위에는 '밖에 누가 있지?'라고 글자 적었어요.



문에 적혀있는 글자는
무슨 뜻인가요?

수민 별명이 수세미라서 수세미네라고 적었어요. 윤서가 지어준 별명
이에요. 이름이 수민이라서 그렇대요. 그리고 집에 이름을 붙여보자고
해서 '숨는집'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만의 쉬는 공간'이라
고 적었어요.

너무 멋진 이름이네요.
집 안도 수민이가 꾸민 거예
요?

수민 네. 여기 만화 붙인 거고, 이거는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갈 수 있는
초대장이랑 자유이용권이에요. 이거는 돈이에요. 입장료!

자유이용권은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수민 윤서가 집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하자고 해서 같이 생각해서 만들
었어요.

'숨는집'이 생기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수민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 끝나고 키움센터 올 때 '놀아야지!'하는 기
분이 드는 것 같아요. 놀러 가는 기분.



‘놀이 탐험대’를 기획한 서미영 문화예술교육실천가는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고 노는 거야’라는 말로 프로
그램을 시작했다고 한다. 뭐든 ‘마음대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겁내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다양한 감각
놀이를 긴장을 완화하기도 하고, 동화 ‘아기 돼지 삼 형제’와 달리 ‘사실은 벽돌이 아니라 지푸라기나 나무
로 만든 집도 잘 만들면 튼튼할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가위나 칼을 잡는 게 아직 서
툴러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그렇게 완성된 ‘상자 집’은 어린이들에게 ‘놀
러 가는 기분’을 선물해 주었다.

"체리 무스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분홍색, 고양이, 아이스크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집

유리네 집은 분홍색이
많은 걸 보니 분홍색을
좋아하나봐요.

유리 네. 여기 분홍색으로 하트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렸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고양이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여기 분홍색 끈 당겨서 문 닫으면 아무도 못 보게 숨을 수 있어요. 문고리도 달았는데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럼 유리네 집은
어떤 집이에요?

유리 아이스크림 가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팔아요!” 이렇게 해요. 앞에 걸려있는 게 메뉴판이에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레인보우, 그리고 망고 샤베트, 그리고 체리 무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 체리 무스
하나 주세요.”하면
어떻게 해요?

유리 그럼 체리 무스 아이스크림을 콘에다 드릴까요? 컵에다 드릴까요? 콘에다가 체리 아이스크림을 넣어요. 체리하고 바닐라 맛이 섞인 아이스크림을 푼 다음에 거기다가 딸기 시럽을 뿌리고 거기 위에다 체리 얹으면 체리무스! “체리 무스입니다!” 이렇게 해요.
원래 메뉴가 하루에 세 개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민트 초코 그리고 레인보우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그리고 딸기 초코, 여기는 체리 무스랑, 그리고 딸기 맛 아이스크림, 초코맛 아이스크림…음… 화이트 초콜릿 맛, 그리고 바닐라 맛 그리고 민트 맛 이렇게 되어있어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네요. 그럼 유리는 사장님
이에요?**

유리 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 키티가 대신 아이스크림 줄 수 있어요.
키티가 가게 직원이에요. 손님들 오면 상자에서 뽕! 나와서 아이스크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무슨 맛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돼요.

**유리는 집이 생기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유리 좋았어요. 근데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 상자를 집 앞에 퍼면 마당
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잔디를 그렸어요.

**마당까지 있었군요. 유리는
다른 친구들 집에도 놀러가
봤어요?**

유리 여기 친구들 집 우체통에 편지도 넣어놓을 수 있고 게임하고 싶으
면 원하는 게임 적어서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돼요.

**오늘 멋진 집도 소개해주고
아이스크림도 줘서
고마워요.**

유리 근데 아까 아이스크림 맛 하나 말 안 한 거 있는데. 복숭아 샤베트
맛도 있어요. 오늘 새로 나온 맛이에요.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없고
 어른들은 차를 타고 어디는
 갈 수 있지만 저희는 어디
 못가서 여기 ~~안~~ 안전해요!!
 정예준

처음 온 선생님들
 얼마 안 돼서 ~~추~~
 억울 못 남기고
 가시면
 아수님 다

키움 센터는 어린이에게 있어 키움 센터가
 키움 센터가 아니라 어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센터는 어린이에게 있어 오빠나 누나
 센터는 어린이에게 있어 나가요

1. 집에 혼자 있어 심심할 때 쓸 수 있다.
 2. 선생님들 너무 차다
 3. 그동안 추억을 만들 수 있다
 4. 어른들은 차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온전 못 하고 혼자 가면 뒤돌
 원망한다
 5. 여기가 없으면 아이들은 절망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놀이 탐험대’에는 어린이들에게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상자 집’이 만들어진 뒤, ‘놀이 탐험대’의 두 선생님이 성북구의 ‘어른센터’로부터 이곳 ‘키움센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편지가 도착했다고 어린이들에게 알린 것이다. ‘어른센터’의 센터장은 성북구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이미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댔다. 몇 월 며칠까지 키움센터를 비우라는 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뽕이쪄?’하며 반신반의하던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넘어가 점점 심각해졌다고 한다.(서미영, 윤일식 문화예술교육실천가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도 ‘어른센터’에 편지를 보내 이 공간을 지키자고 제안하자 어린이들은 진지한 얼굴로 ‘우리에게 키움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써내려 갔다. 어린이들이 쓴 편지에는 ‘우리는 여기가 없으면 갈 곳이 없다’, ‘나의 쉴 곳이 없으면 안 된다’, ‘어른들은 자동차가 있어서 아무 데나 놀러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려서 갈 수가 없다’, ‘여기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나는 길에 있어야 한다’ 등 진심 어린 문장들이 적혀있었다. 키움센터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이었다. 그날 저녁, 키움센터 원장 선생님은 근심 가득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보호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한다.

"모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진이가 꿈꾸는 '그림의 집'

은진이가 놀이탐험대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편하게 '라면'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림의 집'이라고 생각
하고 만들었는데 좋았어요. 완전 1인용. 모든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
릴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림의 집이라는 거예요.

라면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색칠할 때는 대충 하지만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얼굴도 잘
그려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상자로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냥
꾸미기로 하면 좋을 거예요. 귀찮은 걸 시킬 때는 속으로 '완전 킹 받네'
해요.(웃음)

처음에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넓은 집에서 모든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
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그걸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뭔가 좀 망한
느낌이라서 그냥 부렸어요. 그냥 아예 납작하게 만들었어요.(프로그램
이 종료된 이후 어린이들의 의사를 물어 일부 상자 집은 정리되었다.)

분명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어떤 집을 만들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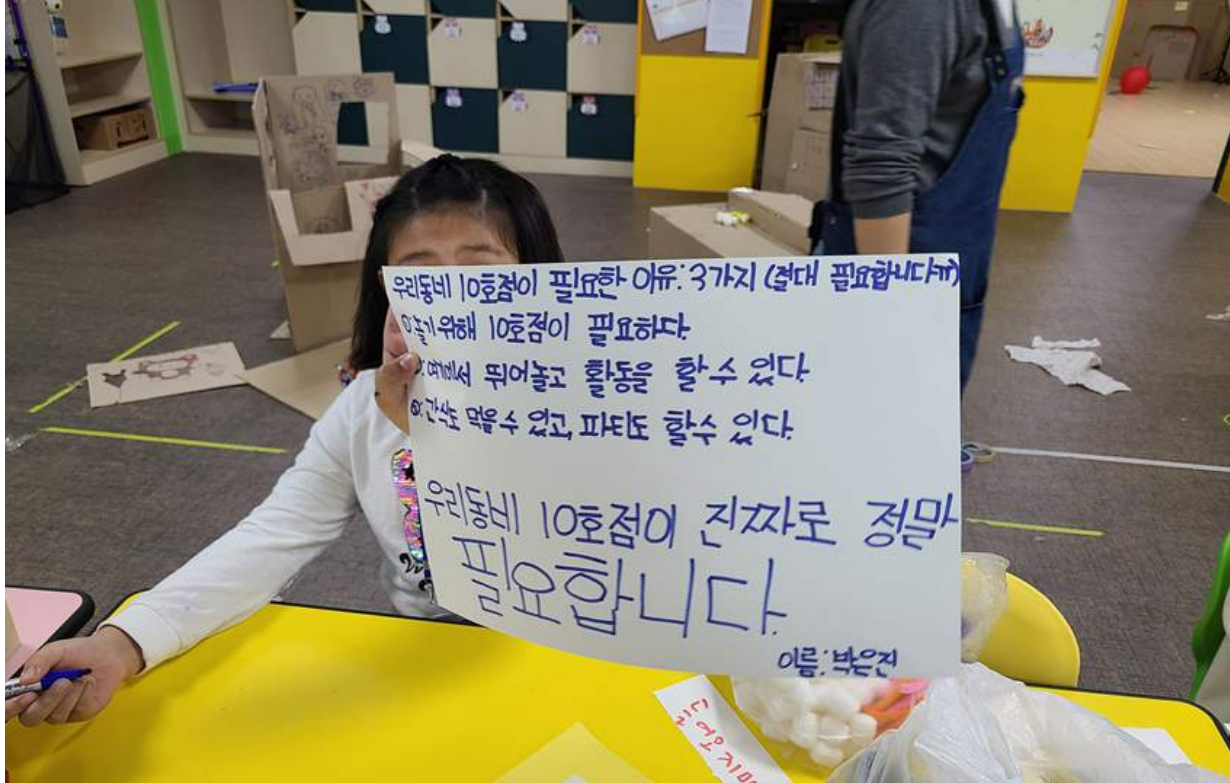
너어어어어어엿은 집!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게 있는 집 만들고 싶
어요.

그럼 아주 넓은 공간이 주어
지면 뭘 하고 싶어요?

라면 백 봉지 먹기. 저는 라면 찐팬이에요. 라면이 좋아서 이름도 라면
인 거예요. 근데 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집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숨바꼭질할 때 숨을 때 이용하기가 좋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친구 집에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제일 좋은 집이 여기예요. 웬지 알
아요? 여기는 너무 넓어서 누울 수도 있어요. 신문지를 찢어서 깔아놔
서 폭신평신했어요. 이 집에선 고양이처럼 있어야 돼요.



문화예술교육을 만난 키움센터 어린이들이 상자로 만든 ‘즐거운 나의 집’. 상자 하나 하나에는 각양각색의 작은 세계가 담겨 있었다. 수민이는 상자 안에서 ‘나만의 쉬는 공간’이 주는 기분 좋음과 다른 친구를 초대하는 즐거움을 모두 경험해 본다. 좋아하는 색으로 꾸민 상자 안에서 우리는 어엿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다. ‘콘으로 드릴까요? 컵으로 드릴까요?’라는 대사처럼 일상의 경험을 놀이로, 연극으로,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은진이는 모든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다란 ‘그림의 집’을 꾸민다. 먼 훗날, 은진이는 자신의 꿈이 어린 시절 만든 상자 집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문득 깨달을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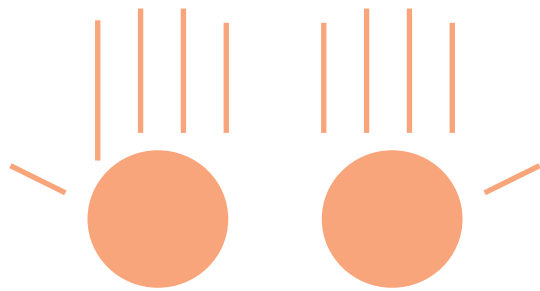
‘상자 집’은 어린이들에게 ‘나만의 공간’뿐 아니라 ‘우리의 공간’의 소중함도 알게 해주었다. 세상의 공간들은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어른센터’다. 뛰어다니면 혼이 나고 어린이에게는 너무 높거나 위험한 공간이 많으며 심지어 어린이의 출입조차 금지하기도 한다. 키움센터처럼 어린이를 환영하고, 어린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한 곳이다. 상자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른센터’에 공간을 지키기 위한 편지를 쓰며 이곳 키움센터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문화예술교육은 뭐든 답을 수 있고 마음대로 꾸미고 오리고 붙일 수 있는 상자를 달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에게 ‘즐거운 나의 집’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공간이 어떤 모양과 빛깔인지,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지 그려보는 일은 결국 ‘나’라는 고유한 세계를 상자 안에 펼치는 일이다. 그 상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어른센터’에 반성을 촉구하는 편지를 한 통 써야겠다.

Q3.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가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일궈나가는 사람들이 보다 즐겁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심사와 평가제도를 지양하고, 실천가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해석과 발견의 시선을 보내며 활동의 동력을 키울 수 있게 한 연구지원 프로젝트로 운영되었습니다. 지원한 6팀 전원이 선정되었으며 총 세 달간 3회 이상의 개별 연구모임을 통해 자신의 주제를 발전시키고, 전체모임을 통해 서로의 연구주제를 읽어주고 공감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내용**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살아가기' 주제의 연구 지원 프로젝트
 - **대상** 성북 문화예술교육 이슈 발굴과 관계 맺기에 의지가 있는 문화예술교육가
 - **기간** 2022.08~11

08 | 연구 공모, 연구제안워크숍

09~10 | 팀별 연구모임 진행 및 프로젝트 실험, 중간공유회

12 | 결과공유회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로 살아가기

올해 겨울은 어떻게 날까?

이것이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에서 한 참여자가 제기한 질문이었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은 크고 작은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그 지원금으로 일상을 유지한다. 지원금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금의 특성상 취지와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정해야 하는 때도 있으며, 어느 때는 취지와 목적에 맞추다가 자신이 정작 무엇을 하려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기도 한다. 가끔은 내가 이것을 하려고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몇몇이 이런 생각을 했다.

심사를 받지 않는 공모가 있으면 어떨까?

이것은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에서 나온 말이었다.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일궈나가는 사람들이 보다 즐겁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살아가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실험과 연구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동료를 찾아 나섰다.



원하는 게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것은 한 참여자가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제안이었다. 나는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였다. 공공의 예산이 투입된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예산이 잘 쓰이기 위하여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생겼다. 실천가들의 연구주제를 읽고 논의한 끝에 우리는 결국 결론을 내렸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실천가가 어떠한 자괴감이나 걱정애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었다.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나 자신도 이러한 낯선 방법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추진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첫걸음부터 마음이 '짠'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첫 발을 뗐다.



본래 5팀을 선정하려 했지만 우리는 각 팀의 연구주제와 제안이 모두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총 6명의 지원자 전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각 팀의 연구주제와 의견 제안은 다음과 같다.

더하심

과정드라마를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성북구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북 지역의 기관과 협력할 방법이 막막했지만, '문화예술교육허브'를 매개로 도전하는 중이다. 어떻게 하면 처음 만나는 센터(기관)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실험 중이다.

도시유랑단

예술교육가로 정릉동을 재해석하는 삶의 터전 연구

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의 관점으로 삶의 터전인 정릉을 재해석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공간을 찾아다니며 유희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은 희망이 있다.

동료구함

스스로 질문하며 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오픈토크

나와 동료의 안부를 묻고 삶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모임이다. 실천가가 무엇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지향점 또는 태도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발화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세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 모임

학교(공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의 당위성으로 설득하고 싶어, 학부모들 간의 모임을 직접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물을 탐구하는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소리의 바깥

공동체의 사유와 삶을 지향하고 지평을 넓히기 위한 낭독회 기준 세우기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기조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말(정제된 말, 건네는 말, 날것의 말)을 수집하여 낭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출가 연구 모임

월장석 친구들의 연출가 스터디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연출가들을 공부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스터디로 발전하였다. 천장산우화극장의 '서서히학교'에서 가지게 된 질문의 답을, 일본의 한 연출가에게서 찾았고 그 탐색의 여정을 어떻게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지 고민중이다.



우리의 모임은 개별 주제를 심화시키는 개별 모임과 전체 멤버가 모이는 전체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총 세 번의 전체모임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서로의 주제에 관해 많은 제안과 지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관과 직접 부딪혀 보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만나 뜻을 나누고, 예술교육가로서 지역을 완전히 재해석하는 지도를 만들고, 지역에 흩어진 언어를 수집하는 작업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고민을 세계적 사례로 풀어나가는 연구를 지역에 남기고 싶어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어떡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지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것은 어쩌면 심사 없는 공모를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막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취지이기도 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공동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난 우리는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본다. 경계를 넘어 서로의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허브가 이런 가슴 뛰는 만남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로 뜨거워질지 벌써 궁금해진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지속 가능한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사실 ‘겨울나기’를 위해서 이 지원사업을 신청한 측면도 있어요.”

최근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가 ‘성북에서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손바닥문화예술교육실험실을 진행하면서 저마다 실천과 연구를 하고 싶은 이들이 한데 모인 날, 그 자리에서 참여 동기를 나누던 가운데 등장한 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에 공감한 실천가 중 셋이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의 겨울나기 그리고 사계절은 과연 각각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우리 사계절의 현실은 어떤지, 미래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겨울나기가 더욱 따뜻해질지 깊이 터놓고 나눴다.

각자 너무나도 다르지만

조그만 맥으로 담아 있는 서로의 겨울나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듯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사이클 역시 그 끝의 추운 날씨처럼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냉랭하다. 봄과 여름날 바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가을에 정신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 겨울에는 다시 열릴 봄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며 웅크리는 시간으로 남는다.

3인의 사계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의 한 해 끝 겨울나기를 함께 짚 살펴보자.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일범 보통 마을활동가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개인 작업으로 시를 쓰는데 마을활동가랑 접점을 찾아보려고 문화예술교육실천가라는 정체성을 올해 처음 받았어요.

윤주 시각예술 중에서 순수회화 및 일러스트 작업을 주로 하고 디자인 쪽으로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에 약 4년 정도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학교 예술교육 교과와 연계된 교육예술가(TA)를 하고 있고요. 성복에 살고 있으면서 두 아들의 엄마로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지 저는 시각예술가이자 예술교육가라고 저의 정체성을 주로 소개하는데요. 시각예술 중에서도 비디오 위주로 작업하고 이때 그냥 영상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과 연계되는 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저마다 겨울나기는 보통 어
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윤주 4년 정도 학교로 예술교육을 나가면서 느낀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고용보험이 돼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음 사업이 올라올 때까지 여유가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적인 데서는 조금 보호를 받는 것 같았죠. 그런 사이클이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만약 그 사업에서 떨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찾아간 듯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 제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모 단체에서 디자인 작업이 들어오면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창작 작업도 교육과 연결해서 해야 하니까 계속하죠. 혹은 또 다른 공고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기도 해요. 예술 하나로 집중하려 하지만 다양한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같아요.

현지 저도 학교예술교육 TA 사업에서 청소년 TA로 2017년부터 청소년 파트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때 저는 사업이 10월 말에 마감되고 다음 해 3월 초쯤 다시 시작할 3~4개월 사이 겨울에 쓸 생활비를 어느 정도 비축해왔어요. 그중 1월에는 전혀 진행되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달에는 지친 몸을 끌고 침대에 누운 채 와식 생활을 많이 했고요. 2월 초쯤이 되면 TA나 다른 공고가 뜨고 지원을 넣기 위해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기획서를 작성한 듯해요.

일범 저는 2019년이랑 2020년에는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겨울에는 고용보험이 안 돼서 그냥 모아놓은 돈으로 지내며 마켓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 컬리환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고료가 30만 원인 원고 청탁을 받으면 3컬리라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1월과 2월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12월 전후로 본격적인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산 같은 걸 마무리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려요. 기대 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전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다음 사업을 만들어야 하죠.

겨울 외 봄, 여름, 가을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언제가 가장 바쁘지도 듣고 싶은데요.

일범 9월부터 11월까지가 압도적으로 바빠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들기보다 그냥 몸이 잘 안 따라주는 시기죠. 늘 어떻게든 넘어왔지만요.

윤주 너무 공감이 가요. 9월과 10월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건강하게 끼니를 잘 못 채울 정도로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바쁜 것 같아요.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시기에는 바쁘다는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요.

현지 저도 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바쁨이 달라진 듯해요. TA 사업은 제게 약간 살아가는 데 뒤에 쳐놓는 배경화면 혹은 보험 같은 건데요. 그해 초에 선정이 되고 나면 직장 같은 느낌으로 꾸준히 계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하죠. 그러는 가운데 만약 큰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 그에 따라 견뎌야 할 압박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진짜 말씀처럼 밥도 못 먹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분이거든요. 작년에 조금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진행했는데 그때 제 몸과 마음에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심하게 바닥을 치며 번아웃이 왔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복이 잘 안됐다가 올해 10월 정도가 되니 다시 조금씩 에너지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바닥을 치지는 않을까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윤주 여기에도 공감이 가는데요. 저는 지금이 매우 바쁜 상태예요. 11월까지 일이 마무리되면 어쨌든 늘 하던 4년 동안의 TA를 그만둘 거거든요. 왠지 제가 소모된다고 느껴져서였어요. 그간 채워지지 않던 예술가로서 작업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모으니 예술가들이 자꾸 소모만 되다 보면 다시 채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겠구나 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창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예술가로든 예술교육가로든 스스로 채우고 다시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시하는 바는 무엇
인가요?**

현지 저는 시 쓰는 모임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채집망 프로젝트가 제 주력상품이거든요. 창작활동으로도 예술교육으로도 거기에서 계속 영감과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채집망 프로젝트와 예술교육이라는 둘을 봤을 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개인의 내밀한 개별성이 있는 마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런 순간을 이미지화하거나 목소리로 써 발화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아요. 거창한 시라기보다는 짧은 글귀를 씬으로써 자기만의 작은 세계를 구축할 한 공간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내가 소모된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예술가로서 예술교육가로서 지키고 싶은 부분 같아요. 어느 정도 내 창작과 맥락이 연관되는 활동을 하고 싶고요. 돈도 돈이지만 내 창작을 중심으로 갖고 그와 연결된 활동이 제게 남는 결과물이자 다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일범 개인적으로 기본 의제 혹은 태도라 할 수 있는 건 통합이 아닌 연결 그리고 경계 허물기 이 2가지예요. 2가지에 부합하는 활동이나 혹은 2가지를 가시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제일 많은 애를 쓰고요. 주제로 조금 더 구체화할 때는 소수자나 지역성, 이 2가지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의 개념을 확장해 보자는 게 추가됐어요. 『원본 없는 판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큐레이터, 특히 공공 기관의 큐레이터들은 관객을 위한 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두운 (심지어 물리적 의미에서도 조도가 낮은) 내용을 피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즉 ‘불편하지 않은’ 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받았다.

『원본 없는 판타지』, 「‘예술에 대한 폭력’과 ‘폭력을 흉내 내는 예술’」(안소현)

공공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착된 정상성의 범주를 넓히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슬픔이나 죽음 등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예술을 공격적으로 다뤄도 되어야 하지 않나, 안 팔릴까 봐 지레 겁먹고 내놓지 못한 것도 용감하게 열어보는 곳이 공공이어야 하지 않나,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어났죠. 또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라면 내가 참여하고 싶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기 싫은 건 아무리 말이 좋을지언정 아무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윤주 제가 최근에 기획한 주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탐구하기였는데요. 우리 현시대의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각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떠올려보고 그것들을 어색하지 않게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다 책임을 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서를 예술교육으로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각예술가로서 또는 인문학적 측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힘에는 본인이 어떤 작은 오브제를 선택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거기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때문에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가치가 판단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듯해요. 그게 아니라 더욱 열려 있고 비교할 필요 없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경험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또 무모함이라는 주제로 예술교육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모해 보이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에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 및 주제에 관심이 있고요.

회화 작업으로는 익명성에 관련해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익명성이라는 걸 색으로 표현하는 작업인데 거기에도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진행하는 중이에요. 즉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순간을 만들어드리는 데 공통된 포인트가 있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현실에 부딪혔다고 할
에피소드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윤주 제 작업을 하고 싶는데 뜨는 공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 작업과 뜬 공고를 어떻게 연결해서 함께해볼까 하는 게 스트레스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그렇게 쓰고 나서 연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 자신도 알고 기획안을 보는 분들도 읽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힘들죠.

현지 저는 물리적인 어려움, 뭔가 컴퓨터에 앉아서 화면 속 문서의 빈양식을 보고 있을 때가 너무 괴로워요. 물리적으로 진이 빠진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은 다 있는데도 문서를 보고 거기 형태에 맞는 텍스트로 옮겨 쓰기가 정말 어렵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일범 기획서만 쓰는 일은 몇 번 하다 보면 어휘나 구조 같은 걸 기계적으로 늘어놓게 되잖아요. 어쩌면 텍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는 별일 아닌지도 몰라요. 진짜로 실행하는 걸 상상했을 때의 부담감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죠. 제가 겁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 쓰면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수도, 일을 다 하고도 제대로 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시간과 마음만 써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압박이 늘 있어요. 진짜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냥 멋진 결과물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쓰이잖아요.

윤주 그렇게 써서 냈는데 안 되면 그렇게 힘들게 한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거기서 오는 심적 손상이 진짜 무시 못 해요. 비슷한 다른 사업이 또 뗀대도 거기서 되리라는 보장은 또 없고요.



겨울 외 봄, 여름, 가을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언제가 가장 바쁜지도
틀고 싶은데요.

현지 앞서 말한 상반기에 힘들었다고 한 공공미술 사업 얘기인데요. 제 채집망 프로젝트와 연결해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비디오 작업으로 시각화해서 QR코드로 볼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에 붙이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었어요. 그 비디오아트에는 주민들과 뭔가 몸짓 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시가 내레이션으로 들리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 작업 기초를 모르는 어떤 공무원이 새로 부임해 와서는 편집한 비디오를 보시더니 갑자기 워크숍 현장의 모습이랑 지하철 역사에 꾸며진 모습까지 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시화도 넣어달라 그러고요. 저는 그건 사업 소개 영상이자 사업 전체 아카이빙 영상인데 그건 내 비디오 작업이 아니라고 설득을 했죠. 원한다면 아카이빙 영상을 따로 만들어드릴 테니 내 창작물은 건들지 말아 달라고요. 창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창작물을 대하는 데 관심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 갑갑함이 온 듯해요.

윤주 제가 만난 사업 담당자들의 대부분은 다들 예술에 이해도 있고 열린 마음이셨는데요. 굳이 예를 들자면 예술교육을 나갔을 때 그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예술교육가들에게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거나 협력적이지 않거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비추는 분이면 아이들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았죠.

일범 저도 성북에서는 문제가 크게는 없었는데요. 성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온도 차를 확 느낀 때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담당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만큼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가깝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버스로 몇 정거장만 가면 그런 세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안전한 환경에서 안락하게만 활동했나 하는 걱정도 종종 하게 돼요.

그래도 이건 대상화의 문제라 생각하고 개선하는 일에 동참하려고요. 예술가와 실천가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문제잖아요. 지금 제가 공기 마냥 여기는 거버넌스나 주체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활동을 친구들과 계속하고 싶어요.

**사업 활동이 연말에 끝나고
다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연속성의 부재에서 오는
고민이 있나요?**

윤주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은 쉬고 내 작업을 더 해봐야겠다는 고민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가 나를 채울 순간으로요. 다만 4년 동안 그리 바쁘게 살면서 뭔가 더 명확해진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창작에만 빠져 있다 보면 좁은 시야로 보게 돼 곤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참여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하다 보니 현시대에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더 공부가 되는 시간 같았어요. 연속성인 측면은 사실 거기도 물음표죠. 이게 어떻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봐야 알 것 같아요.

현지 연속성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점은 이미 그 자체로 고민거리 같아요. 질문 그대로 항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5년 동안 계속한 그 활동도 매년 면접을 봤고 매년 합격을 했기 때문이니까요. 1~2월에 불안감이 생기기로는 결국 이처럼 단기적으로 계속하다가 올해 안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큰 것 같고요. 저는 내년에는 5년 동안 하던 TA에서 벗어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 해요. 예술교육가로 정체성은 쌓았고 거기에 계속 집요하게 있다 고인 물이 됐더니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굳은 마음도 내년에 아무것도 예정되지 않았다는 허전한 마음도 같이 있네요.

일범 저는 그런 주력상품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없어서 걱정이예요. 연속성을 못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어떤 루틴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변형하고 확장하면서 여러 사업을 찾아다닐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로 안정된 콘텐츠를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공공지원에 대해 생각하면 정권에 따라서 사업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도 분명 있고요.

현지 저는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와 낭독에 집중해서 활동을 이어오시니까 그 자체로 결이 있다고 보였거든요.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일범 저 낭독 프로그램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현지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 하면 되죠.

윤주 파이팅.



각자 너무나도 다르지만

조그만 맥으로 닿아 있는 서로의 겨울나기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내려면 행복해지는 방식이 아닌 불행해지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3인의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에게 현재의 방향 그리고 미래의 목표는 끝내 자신의 행복을 채워가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겨울나기 및 사계절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제도상 무엇이 우선 개선돼야 할지가 끝으로 가장 궁금했다. 이에 3인이 답한 기발하거나 혹은 발칙한 생각과 더불어 앞으로 행복을 실현할 목표와 꿈 또한 살짝 물었다.

**지속 가능한 겨울나기를
위해 구조적으로 가장
변화해야 하는 점을
고집자면 무엇일까요?**

윤주 우선은 단기간 일했다라도 다음 일을 준비하면서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고용보험 등 제도적으로 더 잘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행정가들에게 필요한 어떤 수치상으로 발표될 만한 사업만 공모하는 게 아닌 예술교육가에게서 출발한 사업 계획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예술가로서의 필요가 시작으로 된 사업이요. 그걸로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만한 다리의 역할을 행정 쪽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현지 공부라 되지 않은 급진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거울나기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창작자들이 자생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형태로도 나오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에다 수익을 낼 수 있게 영리를 지원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예술은 돈을 벌기 위한 장르가 아니라는 어떤 이미지나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서를 읽으면 꼭 '※ 영리사업 금지'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겨울에 뭔가 우리끼리의 예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써 영리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마중물이 없으니 그냥 자기가 비축한 돈을 비용으로 써서 자기가 어떻게든 메우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지원사업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다 보니 사업의 굴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다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간혹 들어요.

일범 인건비나 고용보험 문제 같은 건 미세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인 고용보험도 이제 시작이니까 관련자들이나 사회적으로나 좀 더 익숙해지고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업이 분기나 반기별로 계속 신청해 들어가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창작이든 교육이든 창작 능력이랑 리더십이랑 능력이랑 레퍼런스를 쌓는 시간을 자기 균형에 따라 확보하는 게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3가지 꼭지에 열려 있는 지원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반기나 분기 단위로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1년에 네 번 실행되면 누구는 1분기와 3분기, 누구는 4분기 전부, 누구는 2분기만 참여할 수 있게요. 자기 수입과 작업의 단계를 동시에 조절하면서 시행 단체와의 교류도 늘려가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 또는
활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가요?**

윤주 앞으로도 제가 같이 만나는 시민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삶의 의미를 갖추기를 돕는 역할로 살아가려 해요. 이때 시각 예술가로든 예술교육가로든 그에 연관된 가치를 계속 탐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단지 제가 경제적으로 측정되거나 사업의 목표로 소모되는 사람이 아닌 한층 자신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하면 좋겠어요. 제가 제 정체성과 의미를 발견했다면 그걸로 충분히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사람이고자 해요.

현지 저는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만드는 데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예술과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술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금자족의 구조를 만들고 싶네요. 또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디지털 노마드스럽게 수익을 만드는 창작을 지속하면서 국내 마을이든 유럽 같은 외국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이게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향성이예요.

일범 저로서는 도망치고 싶지 않은 활동가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도망친다고 더 멋진 곳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달마다 얼마씩 벌면서 살다가 8, 9개월 단위로 모든 것이 리셋되는 지금의 상황이 가끔 버거워요.

끝으로 신현지 그리고 홍윤주 2인은 이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은 얘기라면서 남겼다. “이런 다사다난한 이야기에요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실천가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둘은 곧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계속 삶의 방식을 탐구해야 하는 데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남에게 소모만 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입을 모았다.

추일범 역시 “세금을 쓴다는 것에 부채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려 하지 말자”라는 말을 전했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로 받는 돈이 “불쌍해서 복지로 받는 돈이 아닌 행정에서 필요한 일을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받는 돈”이라는 점에서였다. 그러니 “대충 하고 버는 돈이 아니니 공공을 대하는 개념을 바꾸자”라며 “그런 뽀뽀한 동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무리했다.

한 해의 시작으로 설레는 봄,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열정을 불태우는 여름, 한 해 수확물을 추수하느라 바쁜 가을, 이 모든 순서가 끝나 식어가는 겨울이 도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곧 언젠가는 다시 설렘으로 가득해지는 봄이 꼭 돌아온다. 각자만의 에너지를 지켜가는 문화예술교육실천가 3인이 향후 어떻게 다음 봄을 맞이하며 행복을 채우고 또 나눌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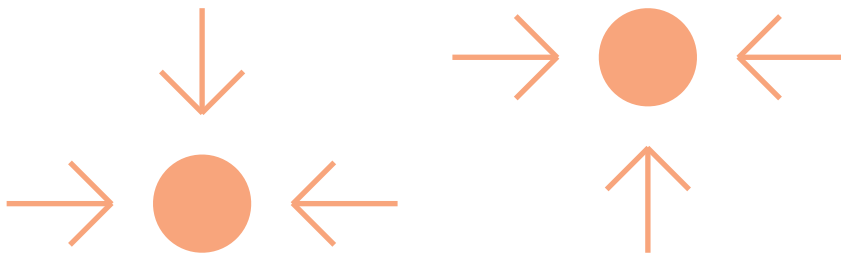
Q4.

동료를 만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모임 '차곡차곡'



월 1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스트가 되어 주제를 발표하고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야기모임입니다. 2021년 문화예술교육 공작소 함의 문화예술교육실천가 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자발적 스터디모임 '꼬깃꼬깃'이 2022년 '차곡차곡'으로 이어졌으며 2023년에도 수많은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모임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
- **내용** 성북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모임
 - **대상** 예술가, 주민,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 **기간** 2022.04~12(월 1회)

06 | '서로의 안전지대를 위하여'

07 | '느슨해진 미술선에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가방끈에 커터칼을 쥐'

08 | '일, 이면지'

09 | '나는 __입니다'

10 | '무장애예술 오픈 토크'

11 | '인사이드아웃'

12 | '수고했어, 오늘도'

올웨이즈, 웰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는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모임, 차곡차곡

“저는 미술교육을 받으며 재미를 단 한번도 못 느꼈어요.

평가받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86년도 교과서에는 태극기가 유난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80년대는 힘차고 당당한 것이 강조되는데 왜 어두운 색채는 없는지 아쉬워요.”

지난 7월 19일 저녁, 길음동에 있는 ‘문화예술공작소 함’은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은 1986년도에 나온 국정교과서 한 권을 가지고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펼쳐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80년대를 신기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나온 유년시절을 아련하게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미술교육’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미술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그 모임은 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끝내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모임의 시작

이 모임의 이름은 ‘차곡차곡’.

작년 이맘때쯤, 함의 멤버인 준이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품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풀어나갈 동료들 찾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고 그 해 연말, 해소되지 못한 채 갈무리될 뻔 한 모임은 모임에 참여하던 동료 월광의 제안과 도움을 통해 이듬해 상반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곡차곡의 시작점, [꼬깃꼬깃 스터디]는 작년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은 필요하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각자가 만들어온 현장의 가치를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만들어갈 지향점을 우리 목소리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로 시작된 저의 호기심은 이 모든 작은 라운드테이블 조성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 넓게 퍼진 문화예술교육을 우리 스스로 깊게 파고들며, 개별적 경험을 나누고 서로가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의 목소리로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과정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호기심과 궁금증은 제 일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

- 준

그리고 마침내, 모임의 끈은 계속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고민으로부터 열린 네트워크의 장이지 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소를 하는 모임이기에 모임의 참여자들이 운영방 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운영되는 호스트제를 도입하였는데요. 매월 이야기할 주제가 생긴 사람은 누구나 호스트가 되고, 호스트에 의해 모임의 컨셉이 정해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꼬깃꼬깃 시즌2 ‘차곡차곡’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나눈 주제와 오간 말을 소개해 보자면요.

4월 4일

비동시성의 동시성: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활동하는 나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호스트: 제이)

- 우리는 비동시적이되 동시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곧 어린이날 100주년인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평화나 전쟁의 메시지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 나 자신부터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일상의 실천 방법을 찾겠다.

5월 2일

신중년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최근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자주 호명되는 ‘신중년’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호스트: 탐)

- 신중년에게 진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일까.
- 신중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동네’를 화두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 신중년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고민해 봐야 한다.
- 인간이 노동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지는 틀을 벗어나 공통의 의제를 바라보며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6월 28일

서로의 안전지대를 위하여 : 약속문

최근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자주 호명되는 ‘신중년’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호스트: 원박지)

- 의도치 않았는데 상처주는 대화를 지양하기 위해 약속문이 필요하다.
- 약속문을 만듦으로써 끼리끼리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특정 발언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
-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7월 19일

느슨해진 미술계에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가방끈에 커터칼을 쥐

1986년도 미술 교과서 속 미술 교육 (호스트: 알렉스)

- ‘붓을 깨끗이 빨아 쓰는 습관을 기르자’ 등 태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 교과서에 ‘대담하게 그려보자’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 나만의 미술 교과서 표지를 만든다면, 돌멩이나 모래를 사진으로 찍어 표지로 넣고 싶다. 일상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예술이라 생각한다.

8월 30일

일, 이면지 : 裏面紙

이면지로 ‘나의 일’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일’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호스트: 조조)

-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선택하고, 내 일을 보다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을 정의하고 ‘나의 일’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일할 때보다는 작가일 때 좀 더 고민해서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일하는 나’와 ‘작가’의 정체성의 충돌을 보여주는 이면지를 가져왔다.
- 이면지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9월 27일

나는 _____입니다

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정체성 (호스트: 준)

- 하루의 일과표를 작성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 “What was I” 질문하기
- 내 안의 다양한 정체성과 외부의 시선 간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짓기 전에 나 스스로를 먼저 알아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10월 25일

무장애예술 오픈토크

문화예술교육에 배리어프리 적용하기 (호스트: 엄더미)

- 무장애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는 무엇이 가능할까.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성 개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모든 장애에 대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실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장애인이나 다 누릴 수 있는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 함께 배리어프리 100% 공연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보여줄 것인가도 중요하다.

11월 23일

인사이드 아웃

문화예술교육가로 살아가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 여러 감정에 집중해보기 (호스트: 부니)

- 문화예술교육가로 활동할 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한다.
-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것들을 마주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곡에 대한 느낌도 있지만, 상대방의 노래에도 자신의 감정을 넣어 함께 나눌 수도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원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12월 23일

수고했어, 오늘도

한 해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돌아보며 내년을 기약하기(호스트: 마고, 탐)

- 차곡차곡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좋았다.
차곡차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영단 스스로가 재미있어야 한다.
- 그 모든 것을 떠나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다문화권이나, 기술융합 관련 주제를 앞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 흔히 문화예술교육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있기도 한데, 날것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도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이 모임을 지속하는 이유는,

모일 때마다 오래된 동료들 만날 때처럼 신나고, 때론 진지하게 논쟁을 벌일 때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한다는 것의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 차곡차곡에 오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부끄럽지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처음 차곡차곡을 만난 건 <동시성과 비동시성>, 전쟁과 문화예술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어요. 말씀해주시던 부분중에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질문을 드리자 제가 민망하지않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이곳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못 말할까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차곡차곡 모임에 참여하는게 즐겁습니다.

- 원박지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접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질문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힘을 얻으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차곡차곡 쌓여 가는 생각들을 곱씹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겨 납니다. 더 단단해 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쌓여갈 차곡차곡의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성북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차곡차곡 쌓여 무르익어 가는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Always welcome to 차곡차곡!!

by 마고(송민정), 팻(지강숙)



Q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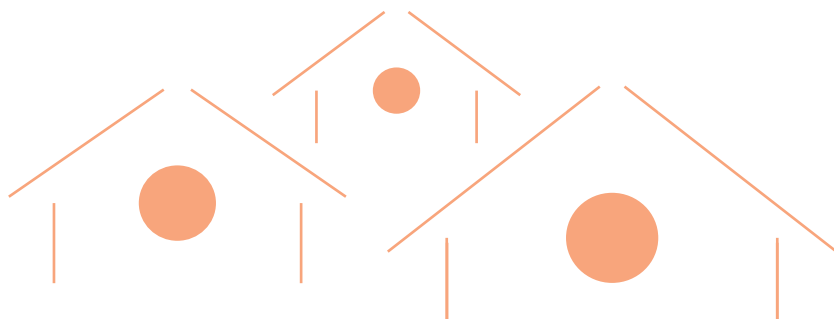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으로

동네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까?

생활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강사 네트워크 LAB



생활기반시설(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중심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민-강사-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습득을 넘어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강사와 참여자, 담당자와의 인터뷰, 만남과 교류의 장, 발표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내용** 주민센터 프로그램 조사 및 강사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실험
- **대상** 성북구 주민센터 강사, 담당자, 참여자 등
- **기간** 2022.06~12

06~08 | 성북 내 주민센터 설문조사

09 | 주민센터 강사 인터뷰

10~12 | 강사 네트워크 모임 및 협업 프로젝트 기획

12 |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파티 ‘샘과 함께’ 개최

석관동 주민센터 한글교실-정릉도서관 연계 전시 진행

문화예술교육가들,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리다!

이 분위기 뭐지?

그날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한글교실을 방문한 날이었다. 80대가 대부분인 수강생분들은 약간의 호기심과 긴장감, 다정함이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우리는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외부인이 와서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등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리와는 달리 백발의 선생님은 평온하게 칠판에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를 설명하고 계셨다.

“강자가 싸움을 하면 약자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오늘 아침에 티비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며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생각났어요.”

감탄하는 수강생들. 역시 반장이네! 하며 까르르 웃는다. 이 분위기 뭐지? 배움에 진심인 느낌이다. 내가 학교에서 이런 진솔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가? 선생님과 수강생 사이, 수강생과 수강생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흐르는. 이 느낌의 정체는 뭘까. 이것은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주민센터 수업을 문화예술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민센터를 찾은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방문 전 우리 세 명은 긴장을 했다. 사실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업들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과 매칭이 잘되지 않았다.



문화예술교육허브의 역할이기도 한, 우리가 전에 만나지 못했던 주체들을 하나씩 접촉해 연결해 보자는 취지인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 그 가운데, 당연히 업무의 연장으로 받아들일 주민센터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만나는 과정이 긴장되기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생각해 보면, 주민센터는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였을 익숙한 공간이다. 우리 셋 중 누군가는 그곳에서 수업을 받은 경험도 있었다. 물론 어르신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방인처럼 앉아 있었던 수업 분위기가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라는 기관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주민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심점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주민센터와 문화예술교육이 만난다면? 여러 가지 신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민센터를 찾았다. 허브와 인연이 있었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미팅을 통해 연결된 성북동, ‘주민자치회 자치 회관 위수탁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종암동,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한글교실이 개설된 석관동 주민센터의 문을 먼저 두드리게 되었다. 과연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행정담당자분들을 만났다.

이 지면을 빌어 바쁜 와중에서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려 했던 세 동 주민센터의 주무관님과, 기대 이상의 협조를 해주신 담당자, 팀장, 동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설문조사의 결과

담당자분들의 협조로, 우리는 당초에 계획했던 설문조사를 실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 설문조사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식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는 질문은 선별하였고, 무엇보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에 넣었다.

그리하여 강사 9문항, 담당자 9문항, 참여자 12문항을 만들었고, 강사 16명, 담당자 3명, 주민 168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 동의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주신 성북동 라인댄스, 종암동 우쿨렐레, 석관동 한글교실의 세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더 뽐어나가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서, 주민센터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다른 동의 강사분들과 서로 가르치는 방식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습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주민센터 수업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이 커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장르와 활동 지역이 다른 강사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만남을 주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신이 연습해 온 것을 펼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연을하기로 했다. 우리가 만나도 되는지,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시작해 보자고 했다.

이런...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것, 우리는 성북에서 가장 뜻깊은 장소에서 강사분들과 함께하는 발표회를 만들고 싶었다. 예정에 없던 장소 섭외, 홍보, 촬영까지 바쁜 날들의 연속. 그런 와중에 업무가 쌓여갈 때쯤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래서, 진짜 문화예술교육이란 뭘까?

요즘도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한다. 사는 게 바쁘고, 우리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이번 주민센터를 모험하는 여정 가운데, 석관동 주민센터의 한글교실 수업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있었어요.”

나에겐 어떤 힘이 있을까? 늘 실패하는 것 같은데, 관계나 업무에서도 늘 불안하고 걱정투성이인데,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며 마주 앉은 아이들과, 활동으로 만나게 된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힘을 내라고. 이미 힘은 내 안에 존재한다고.

문화예술교육은 이미 내 안에 있던 힘을 발견해 주고 호명하는 순간을 만들어 내는 일.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진 힘이 호명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저마다의 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극장을 예약하고 홍보 디자이너를 찾는다. 이런 이유로, 가장 바쁜 12월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by **생기림**

마고(송민정), **오동**(이원선), **랍**(지강숙)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 넘어 자발적 동아리로 '우리 함께' 성장

성북구 종암동에 자리한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연주 소리가 앙상블이 돼 창밖으로 퍼져 나간다. 마을 주민이 스스로 모여 만든 우쿨렐레 동아리 네줄사랑이 자아내는 선율이다. 네줄사랑이라는 이름 자체도 심플하게 악기 우쿨렐레에 4개의 현이 있는 데서 착안했다고 한다.

네줄사랑이 더욱 특별한 까닭은 한정된 짧은 시간에 배워보고 끝나는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친김에 우쿨렐레를 향한 열정과 애정 하나로 선생님과 수강생이 힘을 모아 직접 동아리를 결성해 수년이 지난 현재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줄사랑을 이끄는 이용준 선생님 그리고 네 줄을 사랑하는 멤버 안혜영, 이길웅, 장동희, 김희동 님이 함께하는 연습 현장에 방문해 인터뷰를 나눴다.

주민센터 교육에서 우쿨렐레 재미 알고

스스로 동아리 결성해 네줄사랑 더하다

네줄사랑에게 우쿨렐레는 그냥 반주를 쉽게 치는 도구가 아니라 홀로 연주할 수도 있는 악기 그 이상이다. 인터뷰 당일에도 네줄사랑은 이용준 선생님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무제라 이름 붙인 민요 메들리와 더불어 대중음악으로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연습했다. 나아가 클래식으로도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 또한 연습에 불붙이는 중이다. 선생님만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멤버들 모두가 즐겁게 핵심으로 활약하도록 이끌어가는 지금의 우쿨렐레 동아리 네줄사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들었다.

우쿨렐레 교육은 매주 어느 순서로 진행되고 있나요?

용준 모임 시간이 매주 토요일 10시 반이고요. 보통 약 12시까지 저희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와서는 먼저 손가락 풀기 같은 기초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다음으로 전부 앙상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연주곡을 대개 세 파트로 나눠 파트별로 합주해보고요. 그게 끝나고는 우쿨렐레 반주로 최신 노래나 옛날 노래를 같이 불러보기도 하죠. 그 뒤 시간은 개인별로 하고 싶은 곡을 수준별로 맞게 레슨을 해드리면서 제가 챙겨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이걸 연주하고 싶다 하면 제가 우쿨렐레에 맞게 편곡해서 돕기도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우쿨렐레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요?

용준 그건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그쯤이었어요. 처음 시작은 아마 성북구청에서 마을지원사업으로 바람개비교실인가 하는 이름으로 우쿨렐레 교실을 열어줘서 15명 정도가 같이 했는데요. 그 구청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고 얼마 못 가 끝이 났어요. 그랬다가 얼마 안 돼 제게 주민센터 교육도 들어왔어요. 2017년부터 진행했으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한 셈이에요. 이 교육은 지금도 네줄사랑이랑 병행하고 있죠. 도중에 코로나19로 2년 정도 중단이 됐다가 다행히 올해 7월부터 재개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교육 역시 약 15명의 수강생분들이 듣고 있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로 차있고 당장 배우고 있으신 지도 얼마 안 돼 아주 기초과정에 있다고 보면 돼요. 연배도 그쪽은 60대 안팎이죠. 이쪽 네줄사랑은 50대로 보이지만요.

**어떤 계기로 주민센터 교육
이 끝난 이후로도 동아리를
이어가는 중인가요?**

용준 당시 바람개비교실에 참여하던 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쿨렐레로 합주도 합창도 했는데요. 우쿨렐레라는 악기가 사실 다른 악기보다는 입문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처음 6개월을 배우고 나니 수강생분들이 이 악기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년 만에 사업이 끝나고 교육이 멈춰버렸잖아요. 배우던 분들이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더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서서 더 뭘 해볼까 묻기 전에 그분들이 제게 같이 더 배우면 좋겠다고 더 연주하고 싶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분들이 주축이 돼 발 빠르게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네줄사랑이라는 이름도 처음 그때부터 바로 생겼죠. 현 멤버들 중에서도 그때 그 우쿨렐레 교실부터 꼭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멤버분들은 어떻게 우쿨렐레
를 같이 계속하자고 결심한
계기가 생겼나요?**

혜영 오늘 모인 멤버들 가운데서는 그때부터 계속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웃음) 주민센터에서 처음 우쿨렐레를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요. 보통 우쿨렐레 하면 간단하게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분만이 아니라 연주 자체로도 다양하게 깊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참여한 우쿨렐레 교육은 우쿨렐레로 연주를 하는 교육인 거였죠. 그 점이 제게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연주라는 게 단기간에 마스터하는 게 아니니까 이 기회에 더 지속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였죠. 무엇보다 선생님이 연주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선생님처럼 잘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따라서 몇 년을 하다 보니 절대로 쉽게 되지 않겠다는 점을 깨닫기는 했는데요.(웃음) 그래도 이렇게 취미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매주 참여하고 있어요. 취미라는 건 단기간에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가늘고 길게 가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쿨렐레를 배우며 처음
기대한 바는 무엇이었는지,
이는 시간이 흘러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동희 처음 저도 들어올 당시에도 악기를 하나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1년쯤만 하면 굉장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웃음) 하지만 동아리 멤버로써 한계로는 이게 본업이 아닌 취미 생활이기도 하니 더 깊이 빠져들어 오래 열심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순간에는 매너리즘에 빠져 그만둘까도 잠시 생각한 적이 있죠. 실력이 그닥 늘지도 않았고 재미도 잃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태껏 같이 올 수 있던 데에는 제가 안 나오는 시기에 도 멤버분들이 요즘 뭐하시냐 다시 같이 하자 하며 많이 얘기해주신 덕이 컸어요. 다시 같이 하는 시간 속 자체에서 얻는 에너지도 조금씩 느껴졌고요. 저마다 여럿이 연주를 하면서 어느 하나의 새로운 소리를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어떤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서 더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
이라는 공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용준 바람개비교실 때부터 멤버로 있는 안혜영 선생님이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동아리로 네줄사랑을 시작하려는데 공간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던 중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하자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셔서 이곳으로 오기로 했죠. 공간이 큰 고민이었는데 운 좋게도 그 고민이 길지는 않았어요. 안혜영 선생님이 계셨으니까요.(웃음) 그러고부터 수업시간도 평일 오후에서 주말 오전으로 바뀐 거예요.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에도 어린이 돌봄사업 등등 본래 스케줄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멤버들과 논의한 끝에 시간을 토요일 아침으로 잡는 편이 낫겠다고 해서 바꿨고 그렇게 정착이 됐죠.

**동아리 공간 외에 네줄사랑
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느낀
점으로는 또 무엇이 있었을
까요?**

용준 어려운 점이야 또 있죠. 앙상블을 하려면 사실 6명 정도는 돼야 해요. 그래야 파트별로 2인씩은 나눠서 연습하며 앙상블다운 앙상블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멤버들 수가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구성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거쳐 간 분들도 약 5~6명쯤 돼요. 대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몇 분들이 들어오셔서 앙상블을 할 인원수가 유지되기는 하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로서는 우리의 레퍼토리를 금방 따라오기가 또 힘이 들죠. 그런 경우에는 따로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기존 멤버들도 옆에서 같이 살펴보면 적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이상으로 큰 네줄사랑의 원동력

다 같이 연주해 하나의 소리를 엮어내는 즐거움

네줄사랑의 사소한 어려움은 공연 중에도 종종 벌어진다. 네줄사랑의 새롭고도 아름다운 연주가 아닌 단지 분위기를 띄울 흥겨운 반주만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이 “재미없다!”고 휘방을 놓는 날도 때때로 있더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우쿨렐레로 우쿨렐레 이상을 우리 함께 즐기겠다는 네줄사랑의 음악세계는 4개 현의 오묘하고도 일관된 떨림 만큼이나 일정하고도 굳건하다. 잠깐 경험하고 마는 단계를 넘어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추구하고 이를 혼자서도 아닌 다 같이 한 줄 한 줄 실현해 보이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란 무엇일지도 궁금했다.

우쿨렐레를 통해 얻은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어떤 날 인가요?

길웅 제가 참여하고 얼마 안 있어 주민센터 앞에서 열릴 우쿨렐레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연주하며 하나의 소리를 만든다는 게 어마어마한 감동이 자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제 삶에 큰 의미가 됐어요. 제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남들 앞에서 실력을 뽐낼 기회가 있겠어요? 함께하는 멤버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마음을 맞춰가며 하니깐 여기서도 새로운 재미를 느끼죠.

혼자 뭘 하면 실수가 딱 보이잖아요. 그냥 계속 식은땀을 흘리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같이 연주할 때 제 실수는 하나의 소리에 적당히 묻혀서 별로 생각이 안 나죠.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말해 함께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해요. 그러다 보니 더 잘하고 싶고 더 공연에도 오르고 싶고 그러면서 네줄사랑이라는 동아리에 애착도 소속감도 생겼어요.

우쿨렐레를 가르치고 함께 연주하면서는 어떻게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용준 우리 네줄사랑은 자발적으로 악기를 즐기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한다거나 새로운 걸 하는 데에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도전하고 싶어들 하죠. 제 입장으로는 이렇듯 열의를 품고서 열심히 하시며 빠른 시간 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보람을 느껴요. 지도자로서는 그렇고요.

연주자로서는 우리 네줄사랑의 앙상블 연주를 듣고 우쿨렐레로 저런 음악이 가능하냐며 찬사 섞인 말씀들을 들을 때가 기분이 좋죠. 보통은 우쿨렐레로 간단한 코드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 악기로도 합주 악기로도 충분히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악기거든요.



**네줄사랑 멤버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동기부여를 더 키
워주시는지 하는 방법이 있
으신가요?**

용준 저로서는 특히 잘 하는 멤버가 보인다 해도 대놓고 말을 못하
죠.(웃음) 가끔적이면 서로 차이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칭찬도 해드리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따로 더 연습할 점을 짚어주
기도 하죠. 다른 이런저런 고무적인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우쿨렐레 그리고 네줄사랑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희동 앞서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냥 제가 소리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다 같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 가장 좋아요. 보통
개인이 무슨 음악을 한다는 점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평상시 생활에
서 벗어나 조금 일탈을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듣는 그거만으로 큰
힘이 돼요. 공연을 한다 하면 스트레스를 좀 받지만요.(웃음)

동희 네줄사랑의 원동력은 결국 선생님 같아요. 저희가 했수로는 무척
오래 됐어요. 제가 들어온 지도 6~7년은 됐으니까요. 그간 코로나19
가 심할 때는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기도
했잖아요. 그동안에도 선생님은 지치시지 않고 먼저 나서서 계속하자
고 얘기해주셨으니까 제가 남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선생님 입장으로
는 이게 경제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는 활동도 아닌데도 자꾸 이제 모
여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드리리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선생님의 열정이 제일 첫 번째 큰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해온 시간이 길어졌고 저희가 더 잘하고 있지는 못하
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소리란 뭔지 서로 알게 된 거 같아요. 우리 네줄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소리를 위해 모이는 시간 중에도
조금씩 다듬어가고 이를 각자 마음 속에도 쌓아가면서 그 소리를 계속
잘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조금씩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네줄사랑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은 언제부터 우쿨렐레
교육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용준 제가 사실은 음악을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사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제 나이 50까지 하다가 나이가 들고 퇴직을 했죠. 나와서 이제 뭘 할까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부터 기타를 쳤으니까 그쪽으로 일을 해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기타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우쿨렐레가 배우기 쉽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여하기 시작했죠.

이후 처음 바깥으로 진출한 날이 2015년인가 2016년쯤인가 때 중앙동에서 축제를 할 적에 무대에서 우쿨렐레 연주를 한 날이 있었거든요. 끝나고는 동장님이 그 재능을 왜 썩히고 있냐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쿨렐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쿨렐레를 통해
어떤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을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용준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곧 ‘우리 함께’예요. 앙상블도 물론이고 솔로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성립되는 거거든요. 연주하는 사람과 이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요. 우리 멤버들끼리도 ‘우리 함께’가 되지만 관객들끼리도 ‘우리 함께’ 어울리는 의미가 커요.

다시 말해 네줄사랑의 멤버들도 동네 사람들, 이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즉 이런 동네 사람들이 생활 속 음악으로써 같이 묶이고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 곧 네줄사랑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민요부터 요즘 팝송까지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거창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네줄사랑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우리의 우쿨렐레로 연주해서 우리 성북 그리고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려 해요.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고 싶어요.



**가까운 시기에 네줄사랑의
공연을 보려면 언제 어디로
찾아보면 좋을까요?**

용준 저희가 단독으로 정기적인 공연을 연 적은 없어요. 대개 구청에서 행사를 열거나 마을에서 축제를 열 때 불러주시면 저희가 나가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2회 공연에 나섰어요. 요새는 아파트 자체로 여는 일정도 많잖아요. 거기서 마련해준 무대에도 올랐죠. 요즘 들어서 멤버들 중 몇몇이 우리끼리 한번 장소를 빌려서라도 정기공연을 열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고요. 하지만 최근 좋은 자리가 마련된 덕에 오는 12월 17일 미아리고개에 술극장에서 저희 네줄사랑의 공연이 열려요. 단독공연은 아니고 총 3개 팀 중 한 팀으로요. 이 말씀을 빼먹을 뻔했네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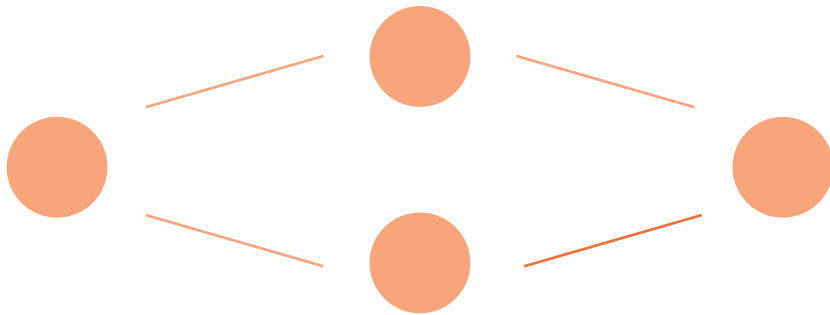


끝으로 이용준 선생님에게 네줄사랑 멤버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돌아온 답변은 그저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연습할 적에는 되도록 빠지지 말자”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우쿨렐레를 좋아하며 더 열심히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뿐이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6~7년여를 우리 함께 연주해온 지금에서도 여전한 열정과 애정 즉 초심을 지켜가자는 진정성 있는 당부일지도 모른다. 네줄사랑의 앙상블이 앞으로 얼마나 더 널리 더 깊이 우리 동네에서 꽃을 피우며 문화예술로써 한층 풍성하게 해줄지 기대가 된다.

Q6.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으로 서로가 연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송곡중학교 특수학급 연계 활동



성북문화재단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송곡중학교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장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교육가, 학교 교사, 기관, 단체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협력과 서로의 성장과 지지를 위한 공론장,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해나갔습니다.

-
- **내용** 송곡중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 장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학교 협력 프로젝트 등
 - **대상** 성북구 주민센터 강사, 담당자, 참여자 등
 - **기간** 2022.04~12
 - 04~12 | 송곡중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12 | 성북문화예술교육콜로키움 -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2회)
 - 12 | 장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가칭) 및 송곡중 전환기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연결되기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성북구의 한 중학교와 성북문화재단과의 인연은 2018년 <우리동네 보물찾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성북구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가들과 함께 만든 <우리동네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고, 송곡중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아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사회를 만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의 아이들을 위한 고민과 먼저 지역의 문을 두드린 용기로 재단과 학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가가 연결되었고 그 작은 연결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꽤 오래, 그리고 공론장, 장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전환기 문화예술교육 등 학교 안팎으로 꽤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시작으로 만난 송곡중학교와 성북문화재단은 재단의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수학급을 위한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북의 문화예술교육가들과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감각을 깨우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성북문화재단 <우리동네보물찾기> 송곡중 특수학급편	2018
성북문화재단 후원사업 송곡중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	2018~2021
송곡중 특수학급 X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1.09~11
송곡중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환경아지트>	2022.05~06
<ㅎㅎ레터> 1호 발행 : 송곡중 특수교사 인터뷰	2022.07
송곡중 특수학급 x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즉흥연주>	2022.09
송곡중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동네 탐험대> 송곡중x월곡중 특수학급 <북서울꿈의숲 가을 소풍>	2022.10~11
성북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 1차	2022.10
성북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 2차 나무와열매 협동조합 연계 통합돌봄 문화예술교육 <스스로 한 걸음>	2022.11
성북구 내 초등 특수학급(장월초, 성북초 외 5개교) 단체 영화관람 성북동주민센터 연계 통합돌봄 문화예술교육 <동그리해결사> 무장애사회를 지향하는 성북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가칭) 1차 모임 송곡중학교(8학급) 전환기 문화예술교육 운영	2022.12

이렇게 학교와 재단, 문화예술교육가가 함께 활동을 기획해오던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다음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문화예술교육, 성북구 내 특수학급 등 보다 많은 현장의 동료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쉽고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런 고민은 송곡중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연결되고 다양한 활동들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사, 문화예술교육가, 장애 문화예술 단체, 교육/돌봄 단체들이 모여 서로의 현장과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동료들이 모여있다는 반가움과 안도감 때문인지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주제의 콜로키움은 1번으로는 부족했고 우리는 한번 더 콜로키움 자리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원을 연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토론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무장애사회를 지향하는 성북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보기로요.

송곡중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을 강사 둘이서 5년 동안 같이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다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뭐지? 둘이 뭔가를 해보자 해도 개인 2명일 뿐인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하지? 우리가 더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 하나?' 늘 고민이었는데, 그게 성북 문화예술교육 허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특수교사 선생님도 거기서 만나고 이게 만약에 제가 "선생님 저랑 만나서 미팅 좀 하실래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허브에서 그 역할을 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오셨고 단체도 오셨고 예술극장을 운영하는 단체도 오셨고 돌봄을 하는 단체도 오셔서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다음을 도모하고 있는...

- 이은엽(문화예술교육가), [2022 성북문화예술교육 포럼: 함께 가는 길, 이어 걷기] 토론 발제





만남과 연결은 이 모임 뿐만 아니라 크고 작게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장월초 특수교사의 열정과 제안으로 성북 관내 특수학급 친구들을 위한 특별 영화관람이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를 통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송곡중 교장선생님은 어떻게하면 중3 학생들이 3년의 중등생활을 잘 마무리고 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며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와의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12월, 중3 학생들의 전환기 수업으로 <우리들이 피워낸 시간>이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문화예술교육가와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학교가 손발을 맞추며 229명의 3학년 학생들과 3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한명 한명의 마음을 모아 교내에 멋진 작품으로 추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어떤 새로운 만남과 연결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나고 초대되고 연결되며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는 성북의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잇다

성북구 송곡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성북의 문화예술교육가들은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을 통해 만나고 있다. 누구나 경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지역 내 장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후원사업의 일환이다. 그 귀중한 연결의 출발점에는 특수교사 이흥규 선생님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사, 지역의 문을 두드리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2년 차 중등 특수교사 이홍규라고 합니다. 송곡중학교에서는 7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워낙 가변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업 연구를 해야 해요.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송곡중에는 특수학급이 두 학급 있고 한 학급 당 학생이 여덟 명 정도 있어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학생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하다 보니 교내에 장애 친화적인 문화가 잘 형성되어있죠. 그 부분은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늘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지금 특수학급 교실 위치만 봐도 느껴지시죠. 중앙 정원 뷰에다가 햇볕도 가장 잘 드는 교실이거든요.



**특수학급에서 문화예술교육
을 시작하고 싶어 지역을
먼저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은 지역사회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을 맞이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플레이그라운드네 이 성북구란 말이죠. 그래서 성북구 내에 관공서, 은행 같은 시설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진행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동네 보물 찾기’라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탐정이 되어서 성북구 곳곳을 탐방하는 내용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당시 ‘우리 동네 보물 찾기’ 프로그램 회고 자리에서 장애 학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와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락이 와서 반가우셨다고 하셨어요. 어딜 가든 항상 저자세로 부탁드리는 위치였는데 환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보물 찾기’를 진행하게 됐어요. 특수학급 중학생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했구요. 한 발짝 더 나아갔던 부분은 비장애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합교육 형태로 진행하니 비장애 학생도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어요.

'로이 쌤 언제 오세요?'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즐거운 만남

학교 안과 학교 밖, 특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그러나 성북 문화예술교육가들, 그리고 송곡중 특수학급 학생들이 서로를 만나 우정을 쌓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그 연결의 값 집을 알려주기에 충분히 보인다. 학생들은 '로이 쌤 언제 오세요?'를 물으며 문화예술교육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이후로도 꾸준히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해오셨죠.**

문화예술교육가들과 함께 학교 상황이라든가 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 하면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어요.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교실이나 동아리 형태로 진행해야 했는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공식적으로 비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 교실에 와서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레크리에이션이라고도 하는 놀이 활동을 주로 했어요.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릴 만한 놀이가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회에서 하는, 달리기를 한 다음 매달려 있는 과자를 먹는 게임은 비장애 학생들에게 익숙한 놀이예요. 그걸 변형해서 몸을 다르게 움직이거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과자를 먹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놀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교육가분들과 함께한 활동을 정규 교과로 도입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여가생활 활용’이라는 교과를 시작했어요. 비장애 학생들은 주말에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어봐도 그냥 ‘집에서 TV 봤어요’ ‘게임했어요’ 정도예요. 누가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하면 우리 친구들도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수업을 만들었죠. 성북동의 한 카페에 가서 커피에 관련된 전문 지식도 배우고, 실습도 해보는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을 했어요.

요즘은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천이나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해서 액세사리 같은 걸 만들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전문가분들이 재료나 재활용 기계를 다 준비해 오셔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수년간 성북의
문화예술교육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어떠세요?**

그 분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오시고, 저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지 안내하고, 그렇게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관계가 쌓여가며 프로그램도 발전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 같이 해주신 이은엽 활동가의 별명이 ‘로이’거든요. 수업 날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로이 쌤 언제 오세요?’ 하고 자꾸 물어보고, 오늘은 안 오신다고 하면 실망해요.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드는 일은 흥미롭고 매력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만 지내다 보면 사고가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어요. 물론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곳이라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문화예술교육가들과
함께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가분들은 학교 시스템이나 일과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길고 어렵거든요. 이미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된 분이 계속 와주시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난감하죠. 그런데 성북의 문화예술교육가분들이 다른 일을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 친구들을 계속 만나주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문화예술교육가들은 학교 안으로 성큼,

학생들은 성북 지역사회로 뿔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동네 곳곳에 친숙해지고, 주말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된 일.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의로 가득찬 이홍규 선생님,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결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홍규 선생님에게 이 “연결”의 의미를 물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처음부터 제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요. 우리 친구들이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왔고, 일반 교과를 배우며 3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부터는 교과 난이도가 높아져서 절반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은 45분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들으며 버텨야 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특수학급 수업에서는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주고 싶었고요. 그게 문화예술교육이었고, 그러다보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가치를
충분히 말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요즘 시작해 보고 싶은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배려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누구나 식당으로 달려가서 빨리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면 다 줄을 양보해 줘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침마다 학교 여기저기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하고, 학교로 도착한 선생님들 택배를 특수학급으로 모아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참 좋아하시고 직업 교육 효과도 있죠.

이런 식의 활동을 성북구 범위로 넓혀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지역자원으로 그만큼 배웠으니 반대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친구들과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많아요. 우선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도 많고요. 미술관 같은 곳은 조용히 관람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완전히 즐기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두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 특수교사 분들은 저희를 굉장히 부러워하시거든요. 성북구와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건 특별한 경우죠. 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 문화재단과 협약을 맺는다는가 하는 식으로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특수학급이나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다보니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즐기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특히 장애 학생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더 필요하고요. 지역사회에 계신 다양한 분들과 함께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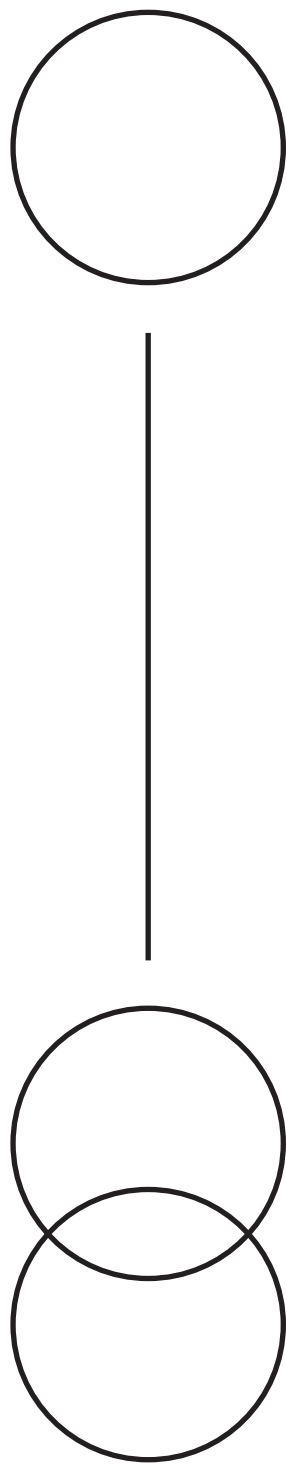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버텨야 하는 학교생활’ 중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했다는 이흥규 선생님. 그 말이 우리 삶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듯하다. 올해는 송곡중 특수학급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지역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역시 성북 문화예술교육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다. 이들의 눈부신 연결에 감탄과 기대를 보내며, 이번 **ㅎ레터**가 성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연결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일, 문화예술교육 허브하기

김경옥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공간민들레 대표



왜 우리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려 하는 걸까?

‘문화예술교육 기초단위 거점 만들기’라는 긴 이름의 활동을 3년 여 해오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질문이었다. 그냥 하면 될 텐데… 자꾸 바쁜데 모이자 하고, 대화하자 하고, 제안하자 하고, 왜 하는지 뭘 위해 하는지 물어보자 하고… 그랬다. 3년 동안의 활동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다만 모이고 연결하고 대화하고 지지하고 응원 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함께 검증하고 또 대화하고…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이 번거로우면서도 따뜻한, 모이고 대화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만들어낸 유형 무형의 연결망을 ‘허브’라고 부른다. 허브는 플랫폼이거나 거점이거나 중심이거나 주변부기도 하다. 아직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어쩌면 앞으로 3년은 더 가야 온전히 정의 내려지거나 정체성을 가다듬을 허브 이야기는 3년 전에 시작되었다.

첫 해, 모이고 대화하고 마음 모으기

2020년 <성북문화재단> 협동조합<마을온예술> 그리고 <공간민들레>는 ‘기초 단위 문화 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활동을 함께 시작했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아르떼의 설명이 다소 여전히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문화재단이나 마을온예술 그리고 민들레는 오히려 그 모호함에 맘이 동해 공모에 응했고, 함께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들은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분권을 실현…’이라는 말에 꽂혔다. 그것은 당시 성북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매하고 모호해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나 성북의 사람들과 ‘선명하게 만들어 가면’ 되겠지 하고 사업을 해보기로 의기투합한 것이 2019년 가을이었고 2020년 봄 부터 본격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지역 분권 실현’은 시대적 화두로, 최근 10여년 사이 문화 뿐 아니라 교육정책 민주주의 정책 경제 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이나 활동이 ‘지역으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어딘가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그 도도한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들 욕구도 이해관계도 존재방식도 라이프스타일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졌고, 이런 복잡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그 방향성으로 실행해내려면 기존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팀업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분권’과는 또 다른 시대적 화두가 있으니 그것은 ‘글로벌’이다. 시선은 글로벌에 두고 실천이나 실행은 내 발이 닿는 곳 로컬에서 하자는 것이다. 당장 내 발등 위의 것은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도전이나 어려움이 곧 우리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실천은 각자 뿌리 내리고 있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글로벌은 인식이 아닌 현실적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지구촌의 사람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야 하지만, 결국 삶의 단위로 오면 각자 하루하루 마스크 제대로 쓰고 밀집 밀접 밀폐를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며 살아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글로벌의 원리’를 우리는 날마다 묵도하기도 했다.

‘글로벌’은 문화예술교육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국가단위에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방향 성과 의제를 설정해 “성북, 강북에서 해봐요” 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동네마다 수요도 욕구도 이해관계도 다르고 복잡해서 마찰도 있고 어긋남도 있어서다. 어긋남, 마찰,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로컬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확보해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도 록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은 ‘일상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효능감도 느끼게 된다.

아르떼의 본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거라 짐작된다. 성북문화재단 마을온예술 민들레가 이 사업에 맘을 내게 된 것도 바로 이 시대적 요구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세 기관 모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활동의 엄중함과 고단함도 알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지역에서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두를 살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셋은 모여 아르떼가 제안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들기’를 시작했다. 거점 만들기는 만드는 과정도 거점 만들기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020년 한 해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활동을 했다.

한 가지는 성북의 문화예술교육의 현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망라하는 빅데이터 수집 정리 작업이었다. 이는 현상과 실태를 파악해야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

서였다. 또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원탁 토론 활동을 했다. ‘지금 우리에게 거점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같은 질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했다. 교사, 수혜자(성인, 청년, 청소년), 복지, 예술강사 및 교육실천가, 교육전문단체 분들이 원탁 테이블로 초대되었고, 대부분 이른바 ‘거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삶의 현장이자, 일상의 공간인 기초단위(동네)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인지 뜻을 모으고,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람들의 연대성을 키워야 한다고. 원탁 대화는 그 자체로 성북의 문화예술 교육 공론화와 지역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기획 실행하기를 꿈꿔왔다는 것을 알아가는 기회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모아낼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성북이라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이 주축이 되어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 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이어오던 12월 그 다음해를 계획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자, 우리의 속도대로 하자. 성북 그 너머와도 연결되어 하자’라는 다짐을 세우기도 했다. 이때의 다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쟁점으로 혹 들어가기

21년에는 한 걸음 더 들어 가보기로 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 하는 중심 또는 동네 거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우리 동네의 과제를 풀어가는 대화와 논의의 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콜로키움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주체라고 자임한 모든 이)들이 의제를 제안하고,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 주민 등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숙의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지역의 당면 과제는 물론 국가나 광역 차원에서의 과제도 의제로 올려, 관리와 행정 중심이 아닌 실천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내용 중심 해법의 실마리를 기초단위에서 찾고 실행해보려 한 것이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당면한 과제를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털어내 보고자 했다. 이는 그저 사업을 위한 대화를 넘어 활동의 진화와 지속가능성을 열어가는 디딤돌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합의한 바였다.

대화의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성북의 학습커뮤니티인 ‘동네교육’이나 ‘공유성북원탁회의’

‘마을온예술’ 등 기존의 커뮤니티들과 콜로키움의 취지를 공유하고 의제를 제안 받았다. 제안 받은 의제 중 공공성, 시급성, 혁신성 등을 고려해 ‘혁신교육에 거버넌스가 부족했던 또는 부족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분권의 현재적 의미와 정책으로서의 진행 상황은?’, ‘기초거점의 거버넌스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예술교육 실천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은?’으로 압축해 진행했다.

2021년 10월의 콜로키움은 지금도 자주 회자된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재인가’라는 화두로 토론 했던 자리였다. 이날은 스코틀랜드의 스타켓처스라는 예술교육 단체의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유아들을 위한 예술교육 기관인 스타켓처스는 지역의 유아기관과 연계해 그곳의 아이들과 2년이 라는 긴 시간 지속적으로 만나 활동한다고 했다. 아이들과 하는 직접 활동과 더불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활동으로 연구활동을 강조했다. 지역의 정책전문가, 유아교육전문가, 예술교육실천가가 다 같이 모여 ‘2년 활동의 의미와 아이들이 보이는 변화와 성장’에 대해 진단한다고 했다. 특히 10월의 콜로키움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특별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계하고, 그 지표에 따라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연구’라는 사실에 크게 공감했다. 연구라는 활동이 자칫 일부 전문가의 것으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활동하는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의 ‘활동을 성찰하고 진화시키는 작업’인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을 지역 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만들기 작업’이라는 먼 나라 영국의 이야기가 훑 다가왔다. 10월 콜로키움에서 스타켓처스의 이야기를 나누며 ‘실천가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며, 문제의식과 실천 테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물었다.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은 스스로의 곤궁한 처지를 보따리상으로 불렀다. 3, 4월에야 나오는 사업비로 생활하다 보니 해마다 1월 2월이면 보릿고개를 견뎌야 하고, 아무리 사이좋은 사람이나 팀이어도 공모 사업 앞에서는 등 돌리고 경쟁해야 하고, 연말이면 정산과 실적 중심의 결과 보고로 헛헛해져,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실천가가 많다고.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실천가의 ‘지속가능성’이 공모사업에서 선발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으니, 활동의 가치나 의미 등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문화예술교육 실천가의 곤궁한 상황은 고스란히 예술교육을 향유하는 이들과 공유된다. 모처럼 맘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 관계 맺고 영향을 받으며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심심하던 일상이 리드미컬해진 이들도 난감해지긴 마찬가지다.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감한 처지에 봉착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시 정리하면,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국가 단위에서도 두루 논의되어 온 걸로 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크고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공모사업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대화와 논의도 이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걱정하고 이 문제와 직면했다. ‘성북’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어서였다. 직면하기는 이렇게 막연한 기대로 시작되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성북 정도의 지역이라면 그래도 근본적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규모도 그렇고 논의의 경험도 그렇고 진심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실천가와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역시민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 하고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러므로 콜로키움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대화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의 장인 셈이다.

성북에서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콜로키움 외에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원탁의 대화모임인 라운드테이블, 포럼, 연구모임 등 방식도 이슈도 참가자도 다른 여러 층위의 대화가 이뤄졌다. 당연히 한두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정답이 드러나진 않는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열심히 토론했지만 2022년 12월 현재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성북은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대화 중이다. 대화와 토론은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만들기’ 활동으로 더 찾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다. 문화예술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상관없다 여겼던 이들도 어딘가 접점을 만들어 대화의 장으로 초대되고 연결된다. 다양한 이들이 모여 대화를 하다 보면 혼자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성북은 그래서 상상하고 도전한다. 씨줄날줄 연결되어 이어지는 대화는 그 자체로 ‘상상과 도전의 거버넌스’다.

다시 2021년 10월의 콜로키움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본다.

“우리의 활동이 공공재라면, 시민사회에게 어떻게 알리고 정책 담당자와는 어떤 합의를 해 낼 것인가?” “우리에게겐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하나? 어디서 어떻게 누가? 서로 얼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안에서 공공재로서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활동해보자.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각자도생하지 않아도 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아주 작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보자.” 같은 말도 나왔다. 지금도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많다. 하지만 그 솔한 대화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도 했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준’을 찾기 위한 동네연구팀을 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기록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의 활동은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성북이라는 동네에서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거리로서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문제해결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셋째 해, ‘허브’에서 함께 이어 걷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들기 활동이 3년째 접어드는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이 연결되고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이런 중에 2022년에는 ‘실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움직였다. 그동안의 대화와 연결이 실천과 실행으로 이어졌다. 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점을 우리는 ‘허브’라 불렀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북에는 서로를 잇고 함께 고민하고 궁리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알려내는 중심이자 연결망이자 네트워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실행은 무엇보다 ‘지역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중앙정부 단위나 광역 단위에서 연구되고 입안되고 그로 인해 지역에서 펼쳐지는 여러 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지역에서 궁리되고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그것은 추상적이고 표준화된 문제의식이나 실행 로드맵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맞춤형이었다. 이것은 ‘예술로 키움’ ‘손바닥 실험실’ ‘주민센터 연계 생활기반시설 강사 네트워크 랩’등에서 빛난다.

가령 지역성을 염두에 둔 실행의 시작은 이런 식이다.

“성북의 아이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고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성북의 키움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그 중 하나라도 풀어보면 좋겠다 생각하며 제안 드립니다. 성북이라는 동네에서 성북의 아이들이 ‘문화예술’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진단하고 궁리하고 의논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지역 예술가와 교육 활동가 그리고 키움센터 선생님, 담당 공무원 또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술로 키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과정을 진단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성북에 필요한 예술로 키움 프로그램을 만들어갑시다. 이 기획단 활동을 함께할 키움센터를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는 허브에서 성북에 있는 10개의 키움센터로 보낸 편지 내용이다. 위 편지를 받은 10개의 키움센터 중 4개의 센터에서 답이 왔다. 우리가 허브와 함께 그 작업을 해보겠노라고, 4개의

센터장과 교사 그리고 허브가 모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일지를 같이 궁리하고 실행했다. ‘예술로 키움’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성북에는 겨우 10개의 키움센터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그 숫자가 100개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지역성과 개별성 맞춤형은 이렇게 도출된다. 먼저 구체성을 가진 당사자가 모여 우리의 문제의식을 끄집어내고 그 문제의식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를 연결한다. 이 또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의 면면을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기초단위여서 가능하다. 물론 기초단위에서 연결되어 있어 가능하다. 당연 허브가 있어 가능했다.

12월 초 ‘예술로 키움’을 정리하는 포럼에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했다. 왜 자주 모이라 하고, 왜 자주 말하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함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꼭 같은 영역에 있는 이들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더 낯선 눈으로 바라보니 더 많은 것이 잘 보인다는 것도 알았다. 키움센터 아이들이 더 잘 보이고, 나의 강점과 약점도 보였다. 결국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번거롭고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들기’라는 아르떼의 3년 사업은 12월로 마무리가 되지만,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또 내가 해보겠노라 손 들고 그리고 이어 걸었던 그 모든 생각과 원리와 지혜는 2023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사업은 끝났지만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함께한 사람들

성북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권경우 길도영 김경예 김경옥 김민서 김세은 김용택 김운경 김육영
김주영 김현경 김현주 남경순 도혜빈 문해주 민지선 박시연 박지원
박한별 박현진 송민기 송민정 심민경 오선아 윤혜정 이룬주 이미정
이성현 이승희 이원재 이윤지 이은엽 이진희 이흥규 임유원 정미숙
좌동엽 지강숙 채민주 한정섭

예술로키움

강동희 길도영 김용택 김유미 김정운 김현수 김현주 박한별 서미영
손민경 송영준 유은지 윤일식 이은영 이정민 이혜숙 임진희 조한상
탁선형

성북 문화예술교육LAB

- 손바닥 문화예술교육 실험실

권정원 길도영 김경옥 김용택 김지희 김현주 박지원 성다인 송민정
신현지 양보은 이민영 이원선 이윤지 이은엽 이진화 임진희 정영미
조한상 지강숙 추일범 한선경 홍윤주 황아름

- 성북 문화예술교육교육 이야기 모임 <차곡차곡>

권정원 김도현 김부경 김재현 김현주 나은지 문해주 박승우 박지원
성재규 송민정 승희조 신현지 심민경 위기훈 윤유선 이성현 이영옥
이진희 지강숙 채민주 한선경 홍윤경

- 생활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강사 네트워크 LAB

강윤정 고선애 고종선 권소연 길도영 김명재 김선임 김은순 김현주
문옥순 박금순 서숙희 송미영 송민정 신희경 안혜영 이길웅 이선아
이숙 이용준 이원선
이창욱 임복순 임옥봉 장동희 정창섭 조숙자 지강숙 지승남 최강섭
최다영 최유희 최춘자 홍승완

-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ㅎ레터>

길도영 김가희 김정훈 김희동 박지원 서수연 송민정 신현지 안혜영
윤나은 이길웅 이용준 이윤지 이원선 이흥규 장동희 장윤제 장지원
지강숙 채민주 추일범 홍윤주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운영단

권경우 김경옥 김용택 김재현 김현주 길도영 박현진 이원재 지강숙
채민주 한정섭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도혜빈 박지원 송민정 이원선 이윤지 이진희 임진희 조한상

2022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X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결과자료집

이 자료집은 2022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x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활동 내용의 결과자료집으로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뉴스레터 <ㅎㄷ레터> 게재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과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해당 기관 및 인물에 있으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2.12.

발행처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12길 4

<https://www.sbculture.or.kr>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bit.ly/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bit.ly/2022문화예술교육공작소함



<ㅎㄷ레터> 모아보기

bit.ly/ㅎㄷ레터



2022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함
X 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